

날짜 : 2021. 5. 21.

**제목 : (주)삼척블루파워의 석탄화력발전사업 회사채 인수에 관한 우려**

저희 “석탄을 넘어서”는 기후변화의 위험을 막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저희는 주식회사 삼척블루파워(이하 “(주)삼척블루파워”)의 석탄화력발전사업이 야기할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고려할 때 (주)삼척블루파워가 사업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한 귀사의 관여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본 서한을 송부드립니다.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이 사업에서 발행되는 회사채를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였기 때문에 총액인수 조건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주권사회사에게 사업의 위험이 전가될 수밖에 없어 귀사의 재무 위험 관리를 위해서도 삼척석탄화력사업에 대한 금융 중단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이 사업을 포함한 석탄화력사업의 환경적, 재무적 문제에 대하여 차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마지막 석탄화력사업, 삼척블루파워**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는 강원도 삼척시 석회석 광산 분지에서 건설 중인 2,100MW 규모의 초대형 석탄화력발전 사업으로, 대한민국에서 지어지고 있는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입니다.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은 화석연료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서 활용도를 급격히 상실하고 있습니다.

2,100MW 규모의 삼척석탄화력발전소는 완공되어 30년 간 가동될 경우 무려 3억 9천만톤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이는 영국이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보다 많은 양이며, 삼척석탄화력발전사업 하나만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투입되는 막대한 노력들이 무위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과학자들은 한국이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중단**<sup>1</sup>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명확한 목표로 설정한 이상, 에너지 정책적으로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지역 환경 피해도 심각한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은 30년간 최대 1,081명의 조기사망자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sup>2</sup> 삼척발전소의 석탄 항만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맹방해변**은 시공 이후 해안선의 상당수가 유실되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항만공사 중단 명령을 통보받아 공사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발전소 공사터에서 총 연장 1km 가 넘는 대규모 천연석회동굴이 발견되어 문화재 지정 절차가 진행중이나, 발전소 공사과정의 발파 등의 충격으로 인한 훼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삼척석탄화력사업의 재무·경제적 위험과 기후금융의 확산

이와 같은 석탄화력발전사업의 문제는 삼척 석탄화력사업의 재무적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통 대규모 발전소 건설사업은 사업비가 모두 조달된 이후 사업이 시작되나, 삼척석탄화력발전소는 사업비의 20%에 달하는 1조원의 자금이 미달된 상황에서 사업이 시작됐고, 아직도 8천억원의 자금 조달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면서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시설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의 타당성에 대해 더욱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이 사업의 진행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입니다.

실사 계획대로 발전소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현재 삼척석탄발전소의 건설공사비는 4.9조 원까지 증가하여, 전력거래소가 수립한 표준 투자비(3.8조 원)를 20% 이상

---

1 Climate Analytics, 2020, ‘탈석탄 사회로의 전환 : 파리협정에 따른 한국의 과학 기반 탈석탄 경로’

2 기후솔루션, 2020. 2. ‘생명을 앗아가는 나쁜 전기, 석탄화력’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삼척석탄화력발전은 발전소 운영기간 동안 85%의 이용률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건설원가를 모두 회수하고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 정부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확대될 경우 삼척석탄화력발전소의 이용률은 2035 년경 절반 이하로 하락하고 2050 년경에는 1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sup>3</sup> 정부의 2050 년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상향될 것임이 확실한 상황에서 향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수익성은 더 큰 폭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삼척석탄화력발전소가 당면한 재무적, 경제적 위험에 대해서 금융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석탄을 넘어서”의 조사 결과 현재까지 전체 채권 운용자산 530 조의 88.6%를 운용하는 22 개의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실질적으로 삼척석탄화력발전의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채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자가 없어진 상황에서 (주)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가 발행된다면, 삼척석탄화력발전소가 단기간 내에 맞이할 재무적인 리스크는 총액인수약정을 통해 발행을 주관하는 증권사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척블루파워 사채의 신용등급을 부여해온 한국기업평가는 2021. 5. 18. 삼척블루파워를 비롯해 민간석탄발전사업을 진행 중인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정부 정책 변경으로 사업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석탄발전의 경제성 자체가 악화되었다는 것이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글로벌 금융사는 물론이고 국내 금융산업에서도 ‘탈석탄 투자’는 주류적 흐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지난 3 월에는 국내 113 개 금융기관이 ‘2050 탄소중립’ 금융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고,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도 ESG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검토하며 석탄 사업에 대한 투자 제한 기준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탈석탄은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응하는 책임투자의 첫걸음

---

<sup>3</sup> 한겨레신문. 「“신규 석탄발전 7곳, 10년 내 연중 절반 이상 멈춰있을 것”」. 2020. 10. 07. 보도

이와 같이 삼척 석탄화력발전사업은 재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타당성을 상실한 사업입니다. 석탄발전을 포함한 석탄 산업 전체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기존의 투자를 회수하는 “탈석탄 금융”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금융산업의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귀사가 삼척석탄화력발전사업을 위하여 (주)삼척블루파워가 발행하는 사채 주관을 포함해서 위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2021. 6. 4.까지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석탄을 넘어서”는 이러한 투자 중단 요청을 국내 주요 증권사에 전달하였으며, 6 월 4 일 귀사의 답변 내용을 포함한 전체 증권사의 답변 결과를 공개하고 삼척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 중단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 귀사와 더 소통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며, 본 사안에 대해서는 아래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mail : [campaign@beyondcoal.kr](mailto:campaign@beyondcoal.kr)**

**Contact : 02-6013-0137**



### 석탄을 넘어서

강릉시민행동,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녹색전환연구소, 녹색법률센터, 대전충남녹색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포럼,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청소년기후행동,  
충남환경운동연합, 카톨릭기후행동,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